

‘통곡의 무안공항’... 눈물로 맞은 을사년 첫 날

참사 나흘째 유족 텐트 곳곳 울음
침통함 속 떡국 먹기로 밀어넣어
신원 확인 완료... 시신 인도 진행
사고 현장 직접 찾아 추모식 진행

“아이고 어찌다가... 아들이 엄마 안 보고 싶나”

희망과 기쁨으로 맞아야 할 2025년 을사년 새해 아침이 밝았지만, 탑승객 179명이 숨진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여전히 2024년에 머물며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새해를 맞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1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내 유족들을 위해 마련된 텐트 곳곳에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 유가족은 “내가 왜 안 말했을까... 이럴 거면 같이 갈걸...”이라며 계속 흐느꼈다. 가족들은 그를 껴안고 등을 두들겨 주며 슬픔을 달랬다.

이날 공항 2층에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 전남경찰수사본부, 유가족협의회 주재 브리핑에서도 한 유족은 “현장에서 유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하지만 떠나보낸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고 이게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는 우리 심정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공항 2층 별관에는 유족들의 마음을 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나흘째인 1일 희생자 유족들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떡국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새벽부터 3500인분의 떡국을 준비했다. 떡국을 먹기 위해 마련된 80여개의 좌석은 유족들과 자원봉사자 등으로 가득 찼지만 전반적으로 고요하고 침울한 분위기였다.

봉사자들은 유족들에게 떡국을 한 그릇씩 떠주며 “밥이 잘 넘어가지 않더라도 유족들이 자리를 지키고 장례까지 잘 치르

려면 건강 생각해서라도 한 숟갈 뜨셔야 한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세요”라고 덕담을 전했다.

떨리는 손으로 떡국을 먹는 유족 중 일부는 복잡한 마음에 입 안에 넣은 떡을 채 씹지 못하고 눈물을 참기 위해 먼 허공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밤사이 희생자 179명의 신원 확인을 모두 마쳤다

고 밝혔지만, 아직 시신 인계와 장례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대부분의 유족은 당분간 공항에 머물 전망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희생자 중 20명의 시신이 가족에게 인도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날 중으로 인도 가능한 40~50구의 시신을 분류해 유가족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유족들은 시신을 인도받아 따로 장례 절차를 밟을지, 혹은 다른 희생자들과 합동 장례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한편, 시신이 인도된 후 발견된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따로 합동 장례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족들은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처음으로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민간인 통제 구역인 사고 현장은 지금까지 유족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아 공항 대합실 등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새해 첫날을 맞아 유족들의 요청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 희생자 1명당 유가족 4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방문을 허용했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 앞에 과일과 떡국 등 간소하게 음식을 마련하고 추모식을 진행했다.

국화꽃으로 헌화하고 절을 하던 한 유족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앉드려 통곡했고 끝내 주변의 부축을 받아 야만 했다. 고인이 된 가족의 이름을 부르던 울분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고 일부 유족들은 과호흡 등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동체 비상착륙을 하려다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정면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고 구조된 승무원 2명만 생존했다. 민현기 기자

대기시간 2시간 걸려도... 새해 첫날에도 이어진 조문 행렬

무안공항 조문객 줄 500m 이어져
‘다른 분향소 이용’ 안전문자 발송
세월호 유족, 가족 잃은 아픔 위로
합동·사이버분향소 등 추모 물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국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새해 첫날부터 17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지자체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희생자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공항 청사 외 다른 분향소에서 조문해달라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제주항공 참사 나흘째이자 새해 첫날인 1일 무안국제공항 내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이 청사 외곽까지 500m가 넘게 두 줄로 길게 늘어선 조문하는 데 2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공항 내부도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공항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질서 유지해 주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조문객들을 안내했다.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정진현(29)씨는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 대신 조문을 위해 무안을 찾았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차마 다 공감하진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정씨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슬픔이 찾아왔고,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경우 지인의 지인이 유족일 정도로 가까이에서 비극이 벌어졌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국민들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소속 세월호 유족 30명도 국화를 들고 분향소 앞에 섰다. 새해를 맞아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앞에서 희생자 상차림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부남·민형배·조인철 의원 등이 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광주시민분향소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 뉴스시스

세월호 유족들은 가족들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기 위해 곤장 무안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장동원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대형 참사로 가족을 잃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싶었다”면서 “세월호에 이어 3년 전 10·29이태원 참사까지 우리 사회가 변한 게 없다”고 호소했다.

광주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사이버분향소에도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광주시 누리집에 ‘사이버분향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분향소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헌화하며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다. 헌화는 로그인 없이 가능하다. 추모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기준 헌화 959명, 추모글 252개가 달렸다.

시민들은 추모글에 “여행의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유가족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릴 순 없겠지만, 가슴 깊이 애도한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었다.

합동분향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5개 자치구 구청장, 구청장(顧景奇) 주광주 중국 총영사, 육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시민 등 5000여명이 조문했다.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찾아왔다는 강현지(28)씨는 “예기치 못한 참사에 주말부터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는 뉴스를 보고 출근길에 들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같은 반 친구가 희생자 명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모(15)양은 “같은 반에서 이야기하며 놀던 친구가 이번 참사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우선 합동분향소 조문을 통해서라도 친구의 마지막 길을 기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문객들은 합동분향소방명록에 “정말 에너지 같은, 비타민 같은 언니가 더 행복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이렇게 빠르게 갔나 싶네. 거기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있어!”, “좋은 곳에서 근심 없이 지내길 기원할게” 등의 추모글을 남겼다.

노병하·민현기 기자

희생자 모욕 글 잇따라
경찰, 모니터링... 수사 착수

전남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게시물 3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전남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 110여 건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다. 이 중 107건에 대해 커뮤니티 측에 삭제, 차단 조치했고 3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에 착수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금과 관련해 모욕하거나 음해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모욕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유가족 대표단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와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한 악성 게시글이 떠돌고 있는데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을 조롱하거나 음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가짜 뉴스에 대해 강력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앞으로도 유가족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유가족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의료지원,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